

# 사상적 지형 이론 서양철학의 고전들

##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의 고전 ⑤ 서양 철학

윤평중 · 한신대 철학과 교수

《출판저널》은 99년 신년호 제248호에서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지성사적인 공황을 밝혀줄 20세기 고전을 뽑았다. 국내 각 분야 지식인 100명에게 비전공 분야를 포함해 15종씩 추천 받아 중복추천된 양서 94선·국내서 36선, 모두 130선을 소개했다. 이 고전 목록을 바탕으로 20세기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하는 특별기획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고전》을 대호 연재하고 있다. 제251호(99년 2월 5일자)에는 그 첫편으로 한국 문학을 실은 데 이어 한국철학(제252호), 한국사회과학편(제253호), 외국고전 가운데 외국문학편(제255호)을 소개했다. 이번호는 외국철학편을 실는다.

금세기의 사상적 지형을 규정하고, 21세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고전으로 뽑힌 저작들의 면면은 프로이트로부터 헉팅턴의 저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롭다. 이 가운데 루카치·그람시·포퍼·롤즈의 저작들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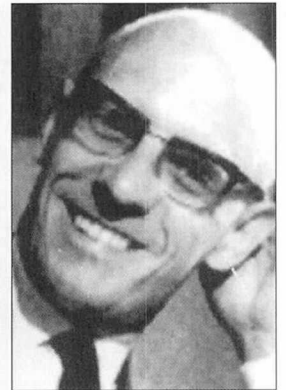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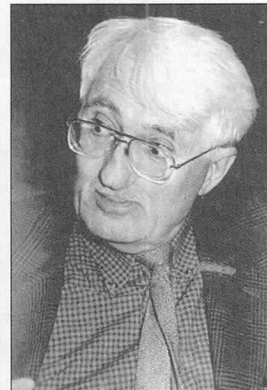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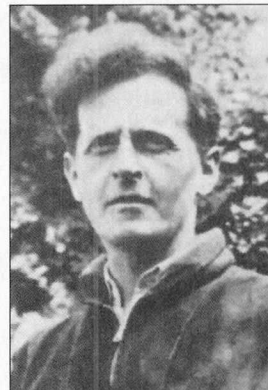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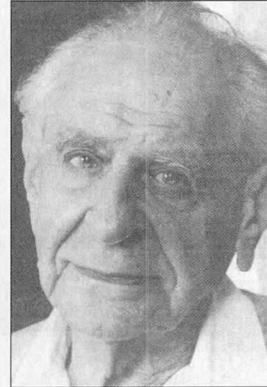
인 이상의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 고전으로 뽑혔다. 또한 국내 연구자들은 하버마스의 경우 5종의 저서를, 그리고 푸코의 경우 6종의 논저를 리스트에 올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재확인했다. 그 사상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이 한 작품씩만 선정된 것은 철학영역 바깥에서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생경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 서양철학의 의제 설정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과 《정신분석입문》은 이성의 '타자의 지형학'을 해부함으로써 이성 중심주의의 허실을 고발한다. 그 학문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 담론은 20세기 지성사의 무의식을 형성하며, 그 무의식은 끊임없이 되살아난다.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은 현대 서양철학의 주된 의제를 설정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서양철학의 전체 역사를 '존재망각의 역사'로 규정한다.

그는 존재 탐색의 열쇠를 '현존재'인 인간에게서 찾는다. 특정한 지평 속에 던져져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시간 흐름 속의 역사적 실존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따라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스승인 후설의 《현상학의 이념》을 지나, 기초존재론으로 방향을 튼 하이데거는 그 후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로 이어지며 철학적 해석학자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1960)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존재와 시간》이 대륙철학에 큰 자취를 남긴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1921)와 《철학적 탐구》는 현대 영미철학의 한 원형이다. 《논리철학논고》의 엄격한 논리주의적 인공언어 이론을 자기비판하면서 서술된 《철학적 탐구》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



윗줄 왼쪽부터 루카치·포퍼·그람시·비트겐슈타인·하버마스·푸코.

한 담구를 매개로 한 맥락주의적 의미론과 진리이론을 주창함으로써 현대철학-사상의 '언어적 전회'를 예비한다.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은 서양철학의 주류 이론들이었던 기초주의적 인식론과 진리 대응이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체시킨다. 전통적으로 철학 연구의 초석 역할을 한 주체의 투명한 의식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언어를 대입시킨다는 것이다.

이후 언어는 다양한 형태로 현대 서양철학·사상의 화두 노릇을 한다.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는 언어 임의성과 차이의 테제를 중심으로 한 관계론적 언어론을 개진함으로써 구조주의·후기 구조주의·기호학 등의 배경을 구성한다.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나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는 이러한 언어론을 배경으로 출현한 것이다. 로티의 《철학과 자연의 거울》은 이같은 언어이론과 미국 실용주의의 전통을 접합시키려 한다.

다른 한편,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은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출범시킨 '정경'으로 간주된다.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론과 베버의

합리화 테제를 결합시킨 루카치의 물화(物化)이론은 현대의 인간조건을 투명하게 진단해낸다. 인간관계를 물상화 시키고, 합리화의 미명 아래 가치를 전도시키는 자본주의적 대중사회의 동학(動學)을 짚은 다음, 그는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의식으로부터 출구를 찾는다.

### 과학적 지식의 역사적 방법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또 다른 대부인 그람시는 선진 자본주의가 왜 붕괴하지 않고 융성하는가를 연구 초점으로 삼았다. 이 점이 그를 '자본주의필망' 테제에 집착했던 다른 마르크스주의 고전가들과 차별화시킨다. 《옥중수고》가 형상화한 헤게모니 이론은, 자본주의의 지배 역학이 강제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정교하게 창출해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가 선진화될수록 레닌식의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이 필수적이다.

지배 헤게모니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할 유기적 지식인의 일상적 실천이라는 그림은, '의지의 낙관론'을 바탕

### < 20세기 외국철학 분야 고전 >

국적	지은이	책이름	발간년도
오스트리아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1900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1953
독일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1921
	게오르크 루카치	역사와 계급의식	1923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1927
		철학적 탐구	1953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945
		과학적 발견의 논리	1959
	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1947
미국	존 롤즈	정의론	1971
	리처드 로티	철학과 자연의 거울	1979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1916
프랑스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1943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1961
		감시와 처벌	1975
	에드문트 후설	현상학의 이념	1964
	자크 데리다	그라마톨로지	1967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1970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수고	1926~37
영국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1998

# 퇴계학 르네상스의 발단

## 퇴계의 생애와 학문

이상은 지음

올초 《출판저널》이 국내 각 분야 지식인 1백명에게 의뢰해 선정한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책들' 중 한국고전 분야에는 절판된 책이 여럿 있어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절판됐거나 번역되지 않은 국내의 고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의의가 있었다. 이 책 역시 이런 관심의 일환으로 다시 증보돼 나왔다.

이 책은 원래 1973년 문고판으로 처음



나온 책이다. 증보판 서문을 쓴 윤사순 교수는 "그 선정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과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곧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던 사실을 떠올렸다"며 이 책의 재출간을 반겼다. 원래 문고판에는 〈생애와 그 인간〉, 〈학문과 사상〉 두 편만 실렸으나 증보판에는 〈사칠논변과 대설·인설의 의의〉가 덧붙여졌다.

문고판에 실린 두 편의 글이 인간 퇴계의 일생과 사상의 핵심을 밝힌다면, 글쓴이의 대표논문인 〈사칠논변과...〉는 이항과 기대승 사이에 전개된 사단과 칠정, 리발과 기발의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해 현대 한국 철학 연구의 물꼬를 튼 논문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증보하면서 지금 독자들을 위해 한문 원문이나 난해한 어투는 고치는 등 적절한 유편을 가했지만, 원문의 숨결은 그대로 유지해 읽는 맛을 살렸다. (김연수)

예문서원/A5신/248면/7800원

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문화유물론이나 현대 급진 민주주의 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 현대 비판이론의 입무

세련된 경험주의자 포퍼는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실증주의적 검증원리를 논파하고 반증주의를 착근시켰다. 이는 그때까지 표준적이었던 통합 과학론의 맹점을 드러내고 과학적 지식의 역사적 성격에 개인에게 함으로써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을 사이비 과학과 분리시키는 특성으로 제시된 반증가능성, 즉 오류가능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포퍼는 전체주의 사회와 차별화되는 민주사회론을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역설했다.

플라톤과 헤겔, 마르크스는 자신들의 이론이 거짓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그 실천적 결과는 참혹한 닫힌 사회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원래 파시즘의 득세에 충격받아 씌어진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논지가, 1989~90년에 걸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에 의해 다시 예증됐다고 포퍼는 확신했다.

롤즈는 실증주의의 득세 이래 폐쇄적인 가치론의 전통을 《정의론》에서 복원했다. 칸트적 의무론과 사회계약론, 합리적 선택이론을 접합시켜 재구성한 그의 정치철학은, 홉스와 로크가 대변하는 자유주의 철학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좌파적 비판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수정 자유주의 철학은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하이에크를 심원한 방식으로 극복하며, 현대 시민주의에 접근하는 진보성을 시현함으로써 자유주의 철학·사상의 당대적 성취를 대표한다. 기든스의 《제3의 길》 시도는 정치철학적으로는 롤즈에 의해 선취됐다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인식과 관심》에서 과학 형태와 방법론을 세계로 나누어 자연과학과 역사과학을 조율하고 견인하는 해방 지향적 비판과학의 정체성을 해부했다. 그동안 좌파적 상상력을 점유해온 마르크스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상호작용이나 소통의 범주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의 재구성은 필수적이다. 그의 《소통행위론》은 이같은 꿈을 이론적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사회적 삶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소통구조의 규범적 근거를 해명함으로써 하버마스는 서양 근대성의 복합적 행로를 포착할 수 있는 나름의 개념을 획득했다.

현대문명의 진로에 대해 1세대 비판이론가들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이나 베버의 《경제와 사회》에서 피력된 비판론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독자적 지평을 이해치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삶의 합리화라는 근대성의 원래 목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행정과 경제를 관장하는 체계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적 합리성을 침탈하는 경향에 대항하는 것이 현대 비판이론의 주 임무로 떠오르게 된다.

푸코는 하버마스적 이성비판을 《광기의 역사》에서 급진화시킨다. 근대 이성이 비이성과 분리되는 원점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푸코는 동일자/타자 차별화의 기제가 서양 이성 상(像)의 형성 자체를 가능하게 했음을 입증한다. 그 결과 이성의 객관성·정당성 논리는 권력을 관철하는 근대성의 정교한 기법임이 드러났다. 이성과 합리성은 예외 없이 권력과 얽혀 있다는 것이다. 《감시와 처벌》은 이러한 권력·지식 연계론을 감옥제도의 형성사에 비추어 미시적으로 해부한다. '차별하는 권력의 신 경제학'이 근대성의 진로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근대화·합리화의 숨겨진 이면이 날이 폭로된다. 그 결과 하버마스적 이성 중심주의의 지향은 해체되고 만다.

여기서 적시된 20세기 사상의 고전들은 징후적 맥락에서 선택된 것일 뿐이다. 세계를 이성의 그릇으로 담아내려 한 사상적 작업들은 항상 현실에 의해 추월당할 개연성 앞에 노출된다. 역사 현실과의 역동적 교섭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 저작만이 고전의 생명력을 잇는 것은 이 때문이다. ❖

# 삼국시대부터 대동여지도까지

## 한국 고지도 발달사

이상태 지음

국경을 정하고 외국과 전쟁을 할 때, 혹은 외교적 교섭을 위해 지도는 만들어졌다. 즉 지도는 스스로의 공간을 인식하는 한 방법이다. 이 책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지도의 변천사를 다뤘다.

고산자 김정호에 매료돼 한국고지도사 분야에서 20년 넘게 연구해온 글쓴이는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70여컷에 달하는 고지

도 사진을 통해 우리나라 고지도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과학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조선방역도》의 정확성, 《동국대지도》의 과학성을 높이 산다.

3, 4장은 고지도 연구에 기본이 되는 고지도목록과 군현의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가장 중점두는 곳은 아마 고산자 김정호에 대한 5장일 것이다. 글쓴이는 기존의 여러 문헌기록을 토대로 김정호의 고향·신분·친분관계 등 그간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았다.

또한 백두산 7차 등정설·옥사설 등 조작된 이야기도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으며 수소문 끝에 김정호의 지도와 지지를 종합한 〈동여지도〉와 〈여비지도〉를 찾아내 미완성의 〈대동지지〉 및 팔도본도류의 전통 위에 선 〈청구도〉가 불후의 명작인 〈대동여지도〉의 바탕이 됐음을 분석했다. (김연수)

혜안/B5/304면/20,000원

